[ 머리핀 ]

채아람에게 건네줬던 머리핀이 문득 생각났다.

머리카락이 눈을 찌른다면….

“머리핀을 하면 되는 거 아냐?”

“앞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두면 되잖아.”

“아…. 머리핀이요?”

“머리핀 하면 앞머리에 안 찔리긴 하겠지만….”

“왜? 머리핀 싫어해?”

“아뇨, 좋아해요. 머리핀은 귀여운 게 많잖아요?”

“근데 머리핀은 끼고 뺄 때마다 머리카락이 뽑히니까요.”

“으, 그럼 아프지.”

“네! 진짜 눈물 난다구요!”

“관리를 얼마나 한 건데!”

아픈 이유가 아까워서였냐.

“근데 관리한다고? 따로 뭐라도 해?”

“엄~청 많이 해요. 머리에 바르는 것만 5개 넘는데.”

“5개!? 샴푸랑…. 린스. 그거 말고 더 있어?”

“당연하죠. 모발 케어랑 컨디셔너, 헤어 에센스도 발라줘야 한다구요.”

“관리 안 하면 머릿결 갈라지고 완전 엉망 되거든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구나.”

“네. 겨울은 더 심해요. 대충 말리면 머리카락이 어니까.”

“그래서 머리 말리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학생회 때문에 밤늦게 자야 하는데 거기에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피곤해진다.

“조금 짧게 잘라볼 생각은 안 했어?”

“자주 하죠. 매일 그냥 확 잘라버릴까!? 하구.”

“그럼 자르면 되잖아.”

“그게 또 막상 자르긴 아깝잖아요.”

“말릴 때는 지긋지긋하지만, 기껏 열심히 길렀는데….”

관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채아람의 머리카락이 달라 보인다.

윤기가 흐른다고 해야 할까. 내 머리카락이랑 다른 종류 같다.

“다시 보니까 자르기 아깝긴 하다.”

“흐흥. 그쵸? 얼마나 정성 들여 길렀는데요.”

“응. 자세히 보니 알겠어. 되게 부드러워 보여.”

“실제로 부드러워요. 빗질도 자주 해주거든요.”

채아람의 손에 머릿결이 엉키지 않고 스르륵 흘러내렸다.

도대체 저 머리카락은 어떤 감촉일까. 샴푸만 쓰는 나랑은 전혀 다를 텐데.

...그래도 만져보겠다고 말하긴 좀 그렇겠지?

맞아. 나 같아도 남이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고 하면 싫을 것 같은데.

“선배도 만져보실래요?”

“어? 진짜? 만져봐도 돼?”

“아뇨. 뻥이에요.”

...낚였다.

“히히. 선배. 어떤 느낌인가 궁금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거든?”

“에이, 아쉬운 표정 다 보였거든요~”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만져보게 해드릴게요.”

“...정말로?”

“네.”

“...약간은 궁금했어.”

“거봐. 그럴 줄 알았어요.”

“자. 한 번 만져보세요.”

채아람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 머리를 옆으로 살짝 기울였다.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실크처럼 바람에 찰랑거렸다.

정말 만져봐도 된다고?

쳐다봐도 채아람은 얼마든지 만지라는 듯이 웃고만 있다.

...본인이 괜찮다면 조금만 만져도 괜찮겠지.

궁금해서 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짝만.

그래, 아주 살짝만 만져보자.

조심스럽게 채아람의 머리카락 제일 아래로 손을 뻗었다.

머리카락에 손가락이 닿기 직전

“사실 거짓말이지롱!”

채아람이 도망치듯 몸을 뺐다.

“다음에 내키면 만져보게 해드릴게요.”

그러곤 내게서 몸을 돌렸다.

빙글 돈 채아람을 따라 머리카락도 함께 휙 돌았다.

이름 모를 꽃냄새가 나는 샴푸 향과

고운 실 가닥처럼 느껴지는 머릿결이

볼을 쓰다듬듯 만지고 지나갔다.

“그럼 나중에 봐요, 선배!”

채아람은 그대로 떠나갔다.

복도에 얼빠진 듯이 서 있는 나만 남기고.

“...”

“...진짜 부드럽다.”